

[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 知

바텀 피싱의 기회, 이번에는 코스닥도 (7월 4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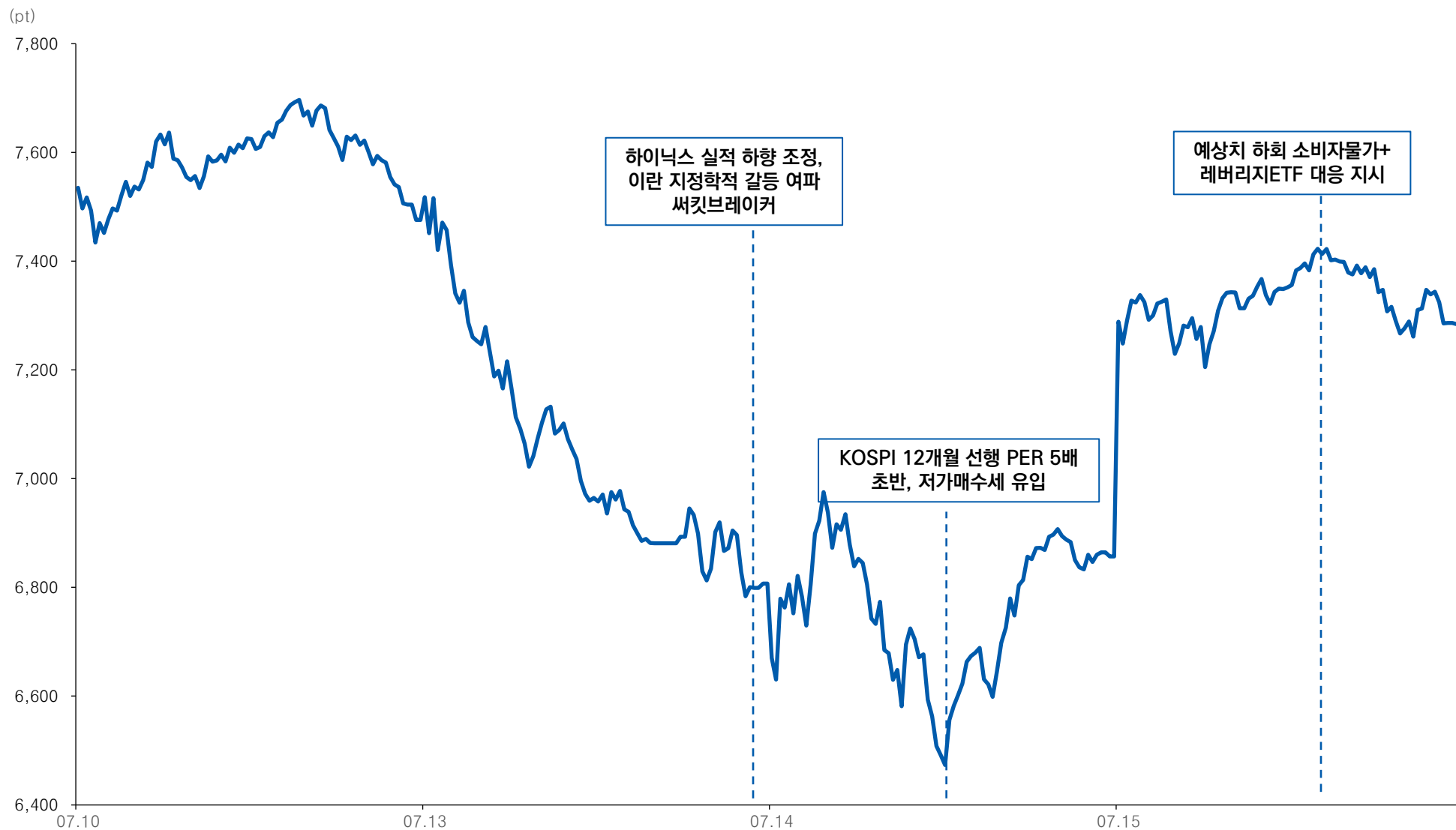
SUMMARY

바텀 피싱의 기회, 이번에는 코스닥도 (7월 4주)

- “투자의 성패는 투자 논리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세상의 걱정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피터 린치.
주간(7/10~7/15) KOSPI, KOSDAQ 각각 -0.1%, +4.5% 등락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발 변동성과 순매수 주체의 부재는 지수가 금융위기 이하의 밸류에이션으로 급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수요와 공급, 이익의 방향성 모두 이번 급락을 정당화 할 정도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 세상의 걱정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의 이익이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만 무너졌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후 투자 논리가 변화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주 물가지표는 확인됐고, 다음주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가 한국시각 23일 새벽 알파벳을 필두로 시작됩니다.
- 이번 급락에서 연기금은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저가매수 완충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 감소로 개인의 추가 매수 여력도 둔화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지수 급락 당시 투매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매수세가 동반 유입되며 순매수 주체의 교체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역사적 저점권이고 환율도 안정되는 만큼 현물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반등의 탄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 6월 CPI와 PPI는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며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AI 데이터센터 Capex의 조달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TSMC는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ASML도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며 AI 로직·메모리 증설 수요와 장비 병목을 재확인했습니다. 물가와 반도체 실적 모두 이번 급락이 펀더멘털 변화보다 기술적,수급적 충격이었다는 판단을 지속합니다.
- KOSPI 12개월 선행 PER과 PBR은 금융위기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이익 추정치 상향은 여전히 IT·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중심 전략은 유지하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와 정부의 KOSDAQ 정책이 수급 풀림을 완화할 경우 장기간 소외됐던 중소형 성장주의 순환매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낙폭과대와 EPS 상향을 함께 충족한 KOSDAQ 종목에 대한 바텀 피싱 기회도 열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수 급락 후 급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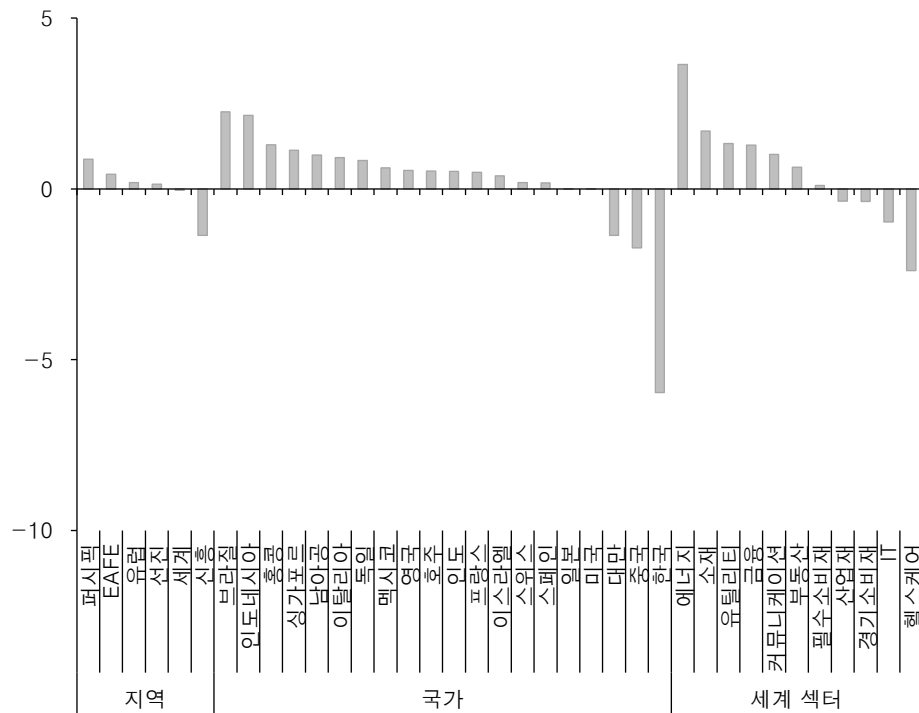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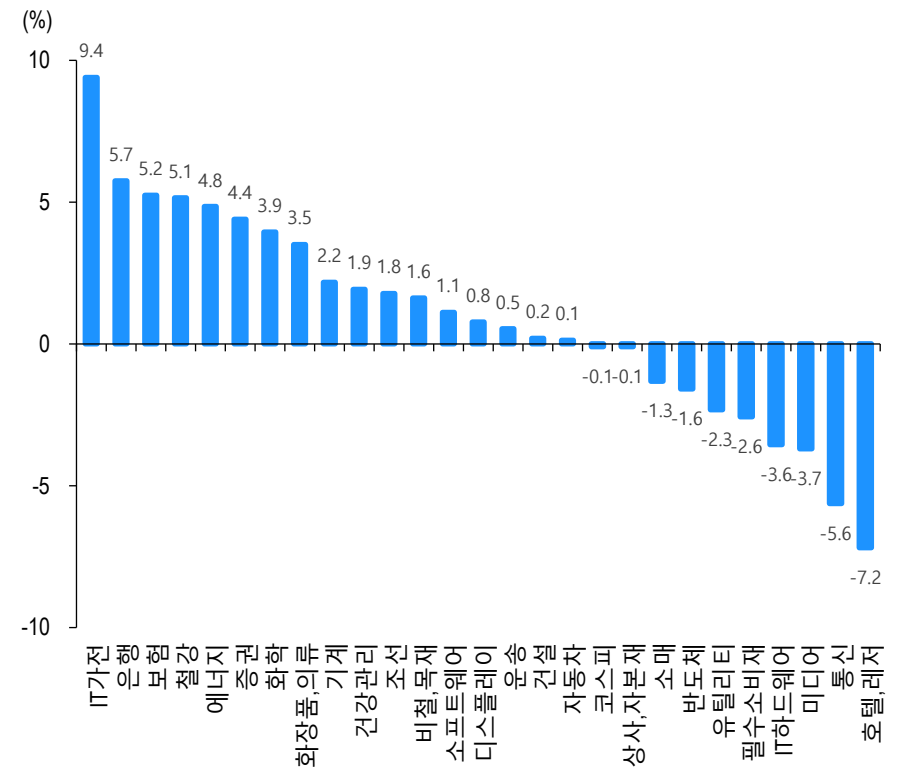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7/10~7/15) KOSPI, KOSDAQ 각각 -0.1%, +4.5% 등락. 투매 및 변동성 장세 속 대형주 급락. 개인투자자 순매수 여력 둔화된 가운데 연기금의 저가 매수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이 투매 야기. 한국만 유독 낙폭 컸던 점에서 확인가능
- 업종별로 2차전지, 은행, 보험, 에너지, 증권 상승. 호텔/레저, 통신, 미디어, IT하드웨어 하락

(%)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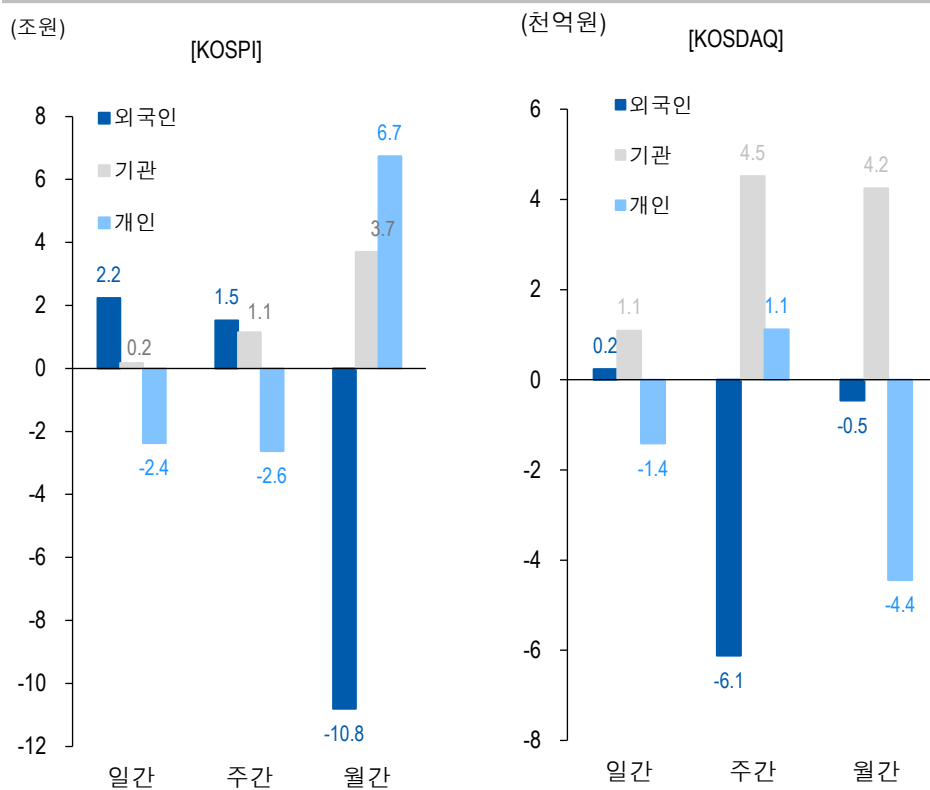


유안타증권 | 4

반도체 투매에 동참한 개인과 저가매수 유입된 외국인

- 외국인 주간 전주 12.3조원 순매도 → 전주 3.7조원 순매도 → 이번주 1.5조원 순매수로 드디어 순매수 전환. 개인은 지수 낙폭 확대 과정에서 투매에 동참. KOSDAQ 순매수
- 외국인 -기관 동반 낙폭 과대 반도체 대형주 중심 순매수. 지수 상승 견인했던 개인투자자 순매수 여력 둔화된 가운데 외국인 현물 중심 자금 유입 지속 관찰되어야 지수 반등에 탄력 생길 것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반도체	반도체	기계
	상사, 자본재	에너지	IT하드웨어
	IT하드웨어	IT가전	호텔, 레저서비스
	자동차	은행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보험	필수소비재
순매도 상위	화학	기계	건강관리
	보험	호텔, 레저서비스	증권
	기계	상사, 자본재	자동차
	은행	소매(유통)	에너지
	IT가전	IT하드웨어	반도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 시장 반등의 두번째 퍼즐, 구글 실적

7월 4주차 주간 일정

	7월 20일(월)	7월 21일(화)	7월 22일(수)	7월 23일(목)	7월 24일(금)
경제지표	중국) 7월 대출우대금리			유로존) ECB 기준금리 결정	
정치					
기업		미국) 3M, GM 한국) 부광약품	미국) 알파벳, 테슬라, AT&T, IBM, 무디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한국) LG디스플레이, OCI, 유니드, 오리온, 제주은행	미국) 유니언퍼시픽, 인텔, 허니웰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 OCI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 JB금융지주, 두산밥캣	미국) 버라이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국)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두산로보틱스
주목 Point	한미 실적시즌 본격화. 필두는 역시 하이퍼스케일러 중 AI Capex 선두주자 알파벳. 한국시각 23일 새벽 5시 실적 발표. 가장 중요한 것은 AI Capex 가이던스.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AI 수익성도 좋게 나오면 좋지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컨퍼런스콜에서 대처 가능. 그러나 AI Capex 하향 조정 혹은 유지는 투자심리 악화 가능. 본인이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펀더멘털에 이상이 생긴 신호에 해당(수요의 감소)				

(수급) 금융 위기 이하 밸류에이션으로 추락한 KOSPI, 순매수 주체가 없었다

- 이번주 급락의 핵심은 매수 주체의 완전한 부재가 아닌 지수 방어 수요가 개인에게만 편중됐다는 점. 연기금은 이번 급락장에서 통상 급락장과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함. 현재 국내주식 비중 부담으로 추가 매수 여력 제한됐기 때문. 개인 역시 기존 빚투 누적 이후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 감소. 외국인-기관의 투매 받아낼 실탄이 악화된 상황
- 레버리지 청산과 손절매 흡수할 장기성 자금 부족했던 점이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금융위기 당시 밸류에이션 저점 붕괴를 야기

급락마다 출동했던 연기금 소방관의 부재는 투매와 진바닥 붕괴를 야기

26년 7월 급락	연기금 순매수대금 (일간, 십억원)	12개월 선행 PER(x)	기관 순매수대금 (일간)	기관 순매수 대금 중 연기금 비중 (%)
2026-07-13	-66.24	5.78	-2233.82	3.0
2026-07-14	86.81	5.84	3211.67	2.7
2026-07-15	18.19	5.84	169.38	10.7
2026-07-09	73.64	6.21	1288.45	5.7
2026-07-09	73.64	6.21	1288.45	5.7
2008년 금융위기 급락	연기금 순매수대금 (일간, 십억원)	12개월 선행 PER(x)	기관 순매수대금 (일간, 십억원)	기관 순매수 대금 중 연기금 비중 (%)
2008-10-24	359.64	6.27	349.67	102.9
2008-10-27	539.71	6.27	626.59	86.1
2008-10-28	164.22	6.27	314.63	52.2
2008-10-29	118.8	6.27	22.59	525.9
2008-10-30	-13.25	6.27	170.46	-7.8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올해 들어 최대 감소폭 보여준 예탁금 & 신용잔고, 급락장서 투매한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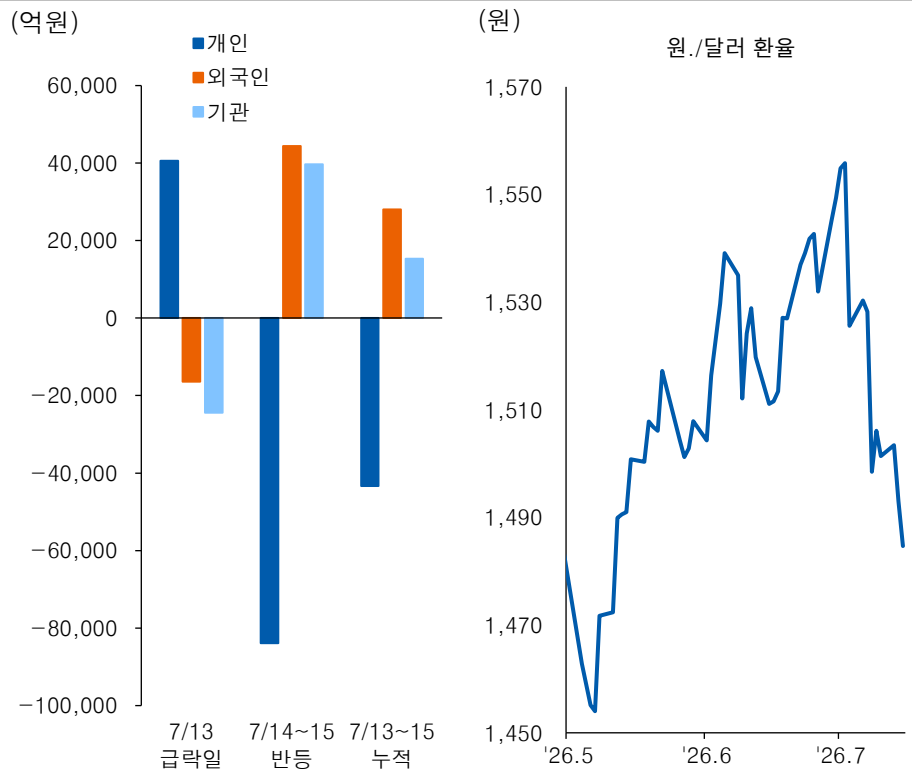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수급 전망) 급락 이후 반등 주체 외국인, 환율도 안정. 돌아온다면 순매수 여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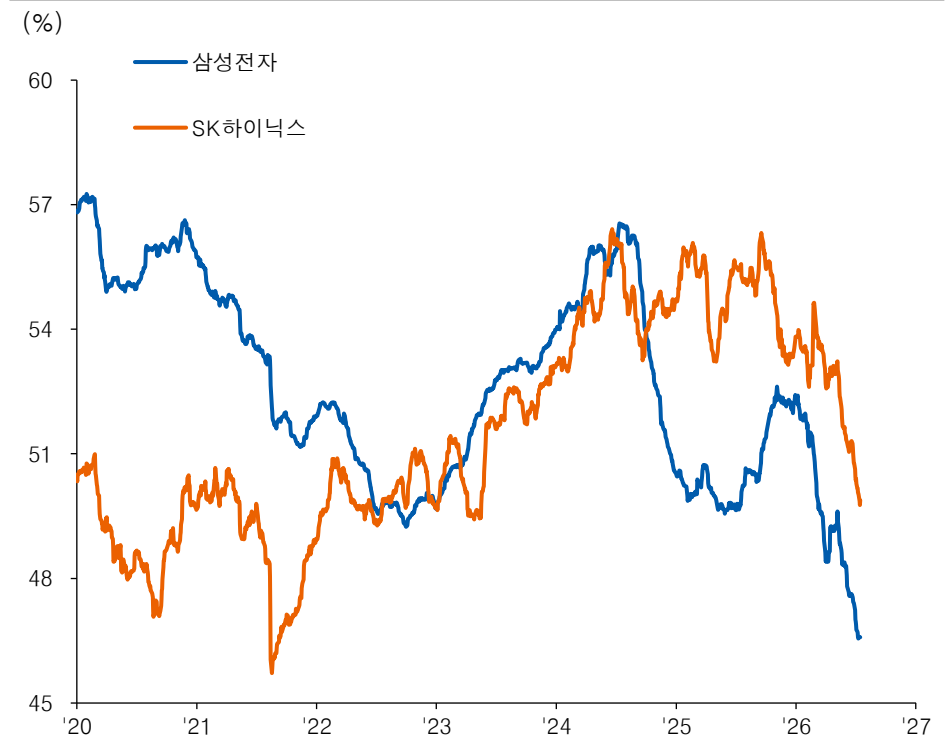
- 이번 주 초 급락에서는 개인이 외국인·기관 매도를 홀로 받아냈으나, 14~15일에는 개인이 8.4조원을 투매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조원, 4.0조원 순매수하며 순매수 주체 교체. 최근 개인투자자 레버리지ETF 중심 순매수 이어졌으나 해당 ETF 급락하며 신용 청산 및 손절 투매 진행된 것으로 추정
- 반등의 지속 여부는 외국인 현물 순매수의 연속성 지켜봐야 하겠으나 매크로 데이터 안정적으로 나온데다 금일(16일) 한국은행 금리 인상 기정 사실화 됐기에 환율 안정화 가능성 크다는 판단. 최근 지속된 원화 약세는 외국인 자금 유입 막았던 변수. 현재 반도체 대형주 외국인 지분율 역사상 저점 부근, 돌아온다면 순매수 여력 크다는 판단

외국인 자금이 지수 반등 견인, 개인은 투매 지속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대형주 외국인 지분율은 역사상 저점 부근, 돌아온다면 여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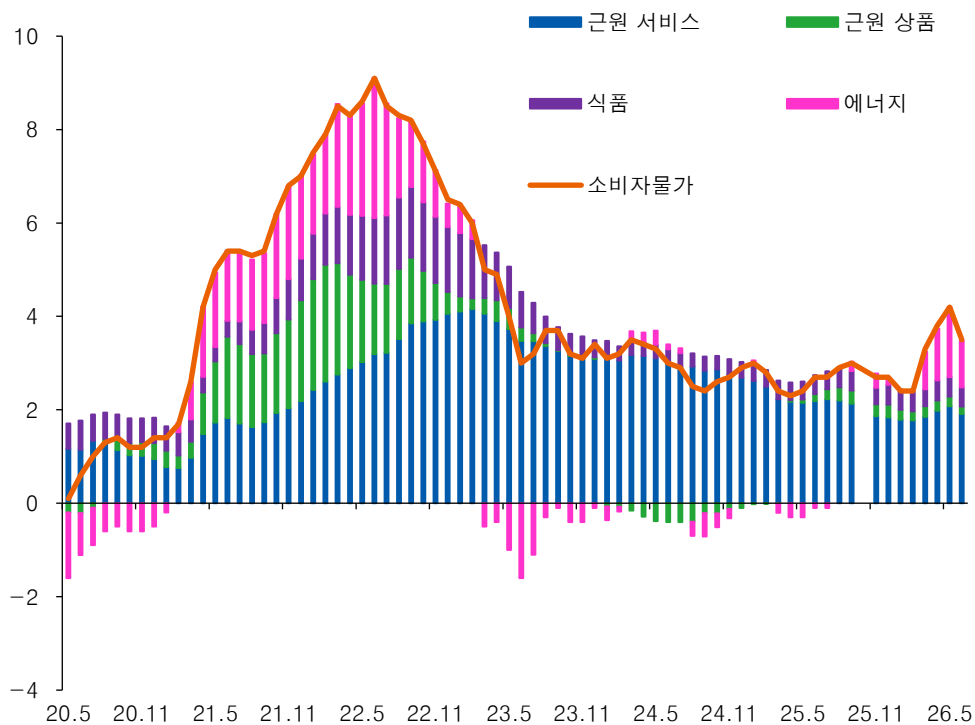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곡소리는 어디가고 유가 하락에 물가지표 안정화 → 시장 반등 야기

-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전월 대비 -0.4%(예상 -0.1%), 근원 소비자물가 0%(예상 +0.2%)로 예상치 하회. 생산자물가도 -0.3%로 예상치 0%, 전월 +0.6% 대비 급락. 전년 대비 상승률도 6%에서 5.5%로 둔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가 이틀 연속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대폭 완화
- 회사채 발행과 외부 자본조달 의존도가 높은 AI 데이터센터 Capex, 매크로 지표가 중요한 이유. Capex의 조달비용 부담 감소로 반도체의 1차 반등 조건은 충족. 추세적 반등 위해서는 현재 재차 불거진 이란-미국 노이즈(지겹습니다 트럼프이시어)가 완화되어야 함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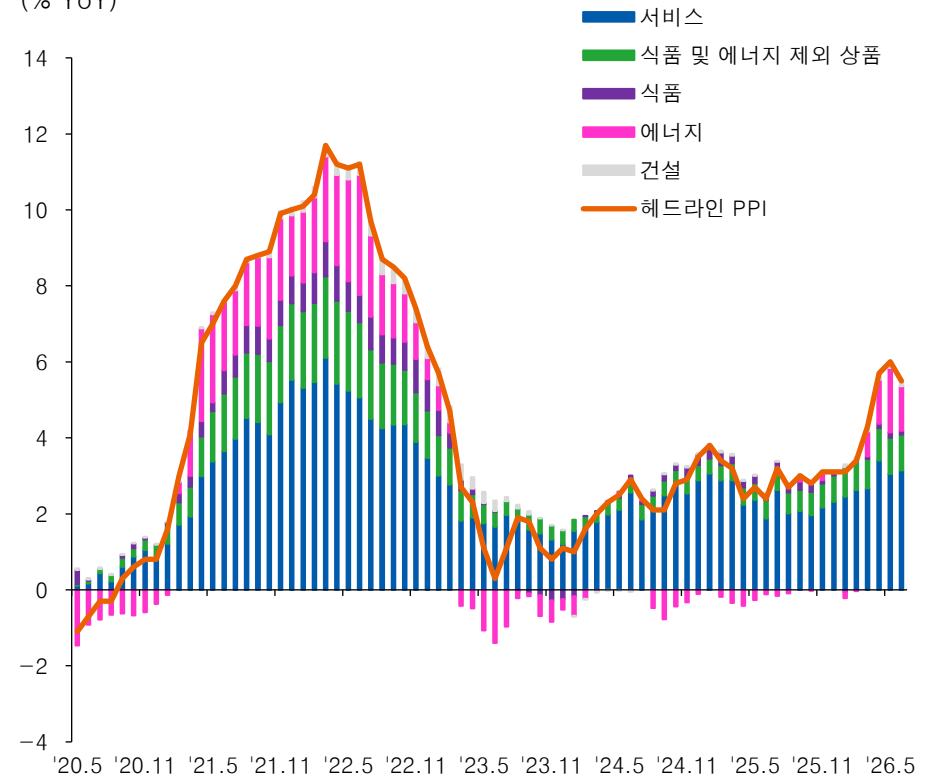
(% YoY)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생산자물가 추이

(% YoY)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TSMC, ASML도 모두 호실적 발표

- TSMC 2분기 매출은 1.27조대만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며 사상 최대이자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
- ASML은 2분기 매출 93억유로와 매출총이익률 54%로 기존 가이드언스를 웃돌고, 2026년 매출 전망을 430~450억유로로 대폭 상향. 고객사의 AI 로직·메모리 증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7년 EUV와 DUV 생산능력을 각각 30% 확대하기로 한 점은 최근의 반도체 증설 발표가 공급과잉의 전조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임을 확인
- 물가와 더불어 이번주 우려 요인이었던 기업 실적 역시 호실적으로 귀결. 다음주 구글 실적이 화룡점정이 되길 기대하는 이유

TSMC는 실제 AI 칩 수요의 강도를, ASML은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 증설 의지와 장비 병목을 확인

구분	TSMC	ASML
2분기 핵심 실적	매출 1.270조대만달러, +36% YoY, 사상 최대. 시장 예상 1.264조대만달러 소폭 상회	매출 93.3억유로, 순이익 29.2억유로, EPS 7.59유로
월간 흐름	6월 매출 4,426.8억대만달러, +67.9% YoY, 전월 대비 +6.2%	설치기반관리 매출 27.6억유로, 장비 판매 91대
수익성	실제 마진은 7월 16일 발표. 기존 가이드언스는 매출총이익률 65.5~67.5%, 영업이익률 56.5~58.5%	매출총이익률 54.0%, 기존 가이드언스 51~52% 상회
향후 가이드언스	아직 미발표. 하반기 AI 수요, 2나노·CoWoS 증설, 연간 매출 전망이 핵심	3분기 매출 110~120억유로, 매출총이익률 55~57%
연간 전망	기존 전망은 2026년 달러 매출 30% 이상 성장	2026년 매출 430~450억유로, 마진 54~56%로 기존 360~400억유로 ·51~53%에서 대폭 상향
핵심 메시지	AI 가속기와 첨단공정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 파운드리 가동률과 매출 성장 지속	고객사들이 AI용 로직·메모리 생산능력 확대 가속. 2027년 EUV·DUV 생산능력을 각각 약 30% 확대하고 2028년 추가 확대 검토
한국 시장 함의	HBM·첨단 패키징·서버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 완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증설은 공급과잉 신호보다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라는 근거. 장비 공급 병목도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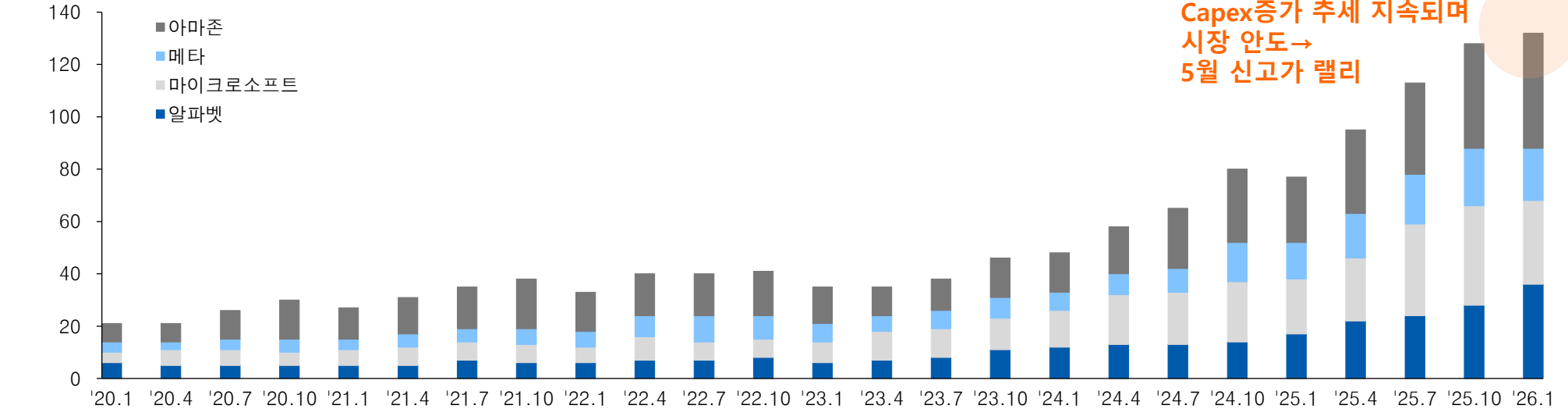
(실적 전망) 최중요 이벤트, 23일 새벽 발표 알파벳 실적은 강한 지수 반등 동력이 될 것

하이퍼 스케일러 1분기 호실적 발표, 시장 관심은 AI Capex에 달렸으나 예상치 상회 및 가이드언스 상향 조정

(십억달러)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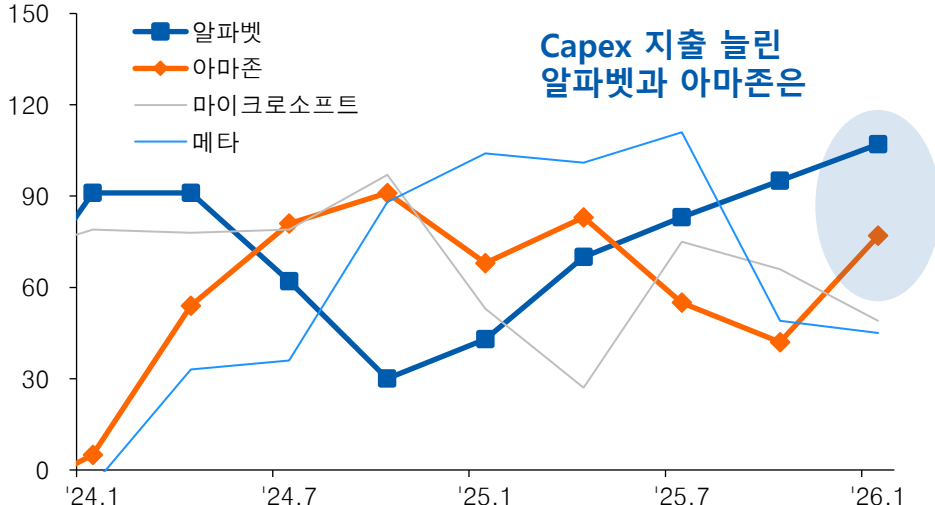
4/30 1분기 빅테크 실적 발표,
Capex증가 추세 지속되며
시장 안도→
5월 신고가 랠리



(%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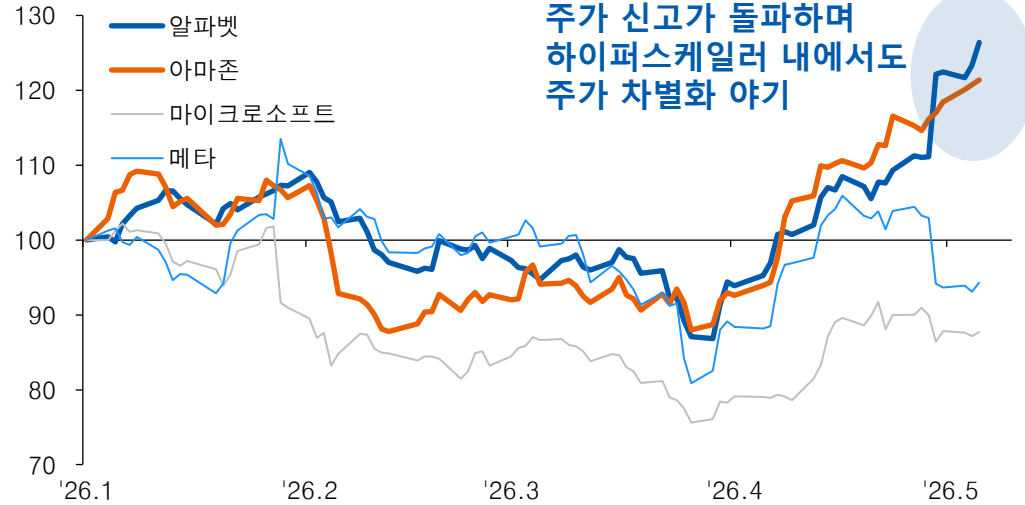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증가율추이]

Capex 지출 늘린
알파벳과 아마존은



(26/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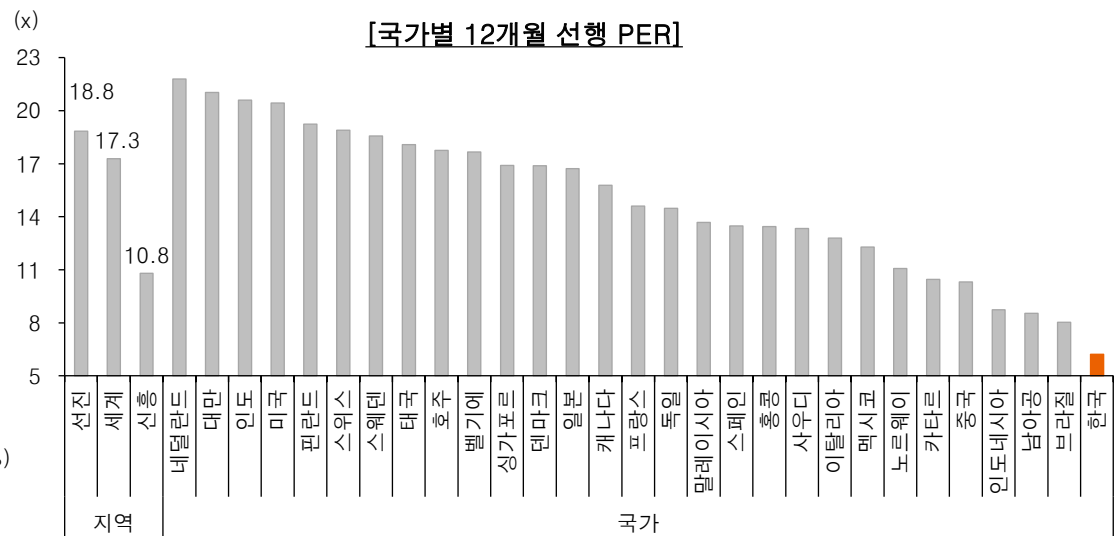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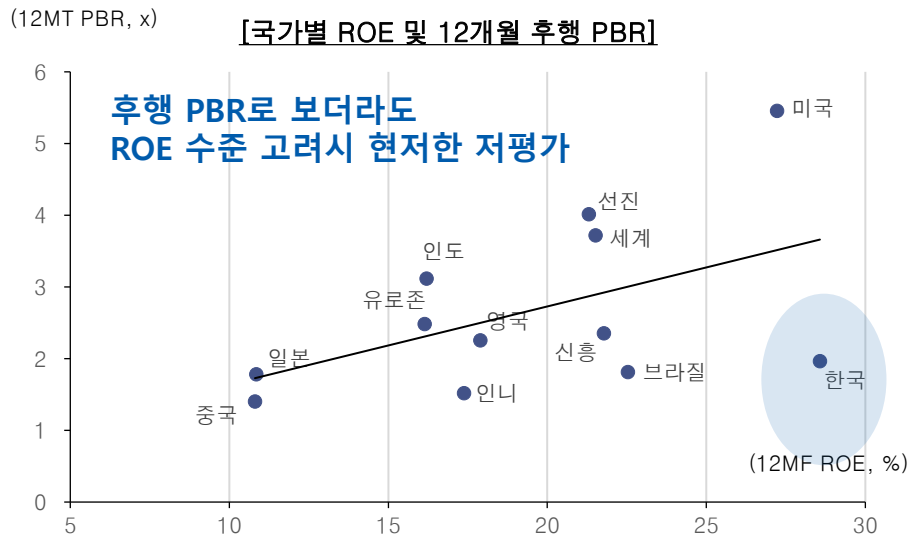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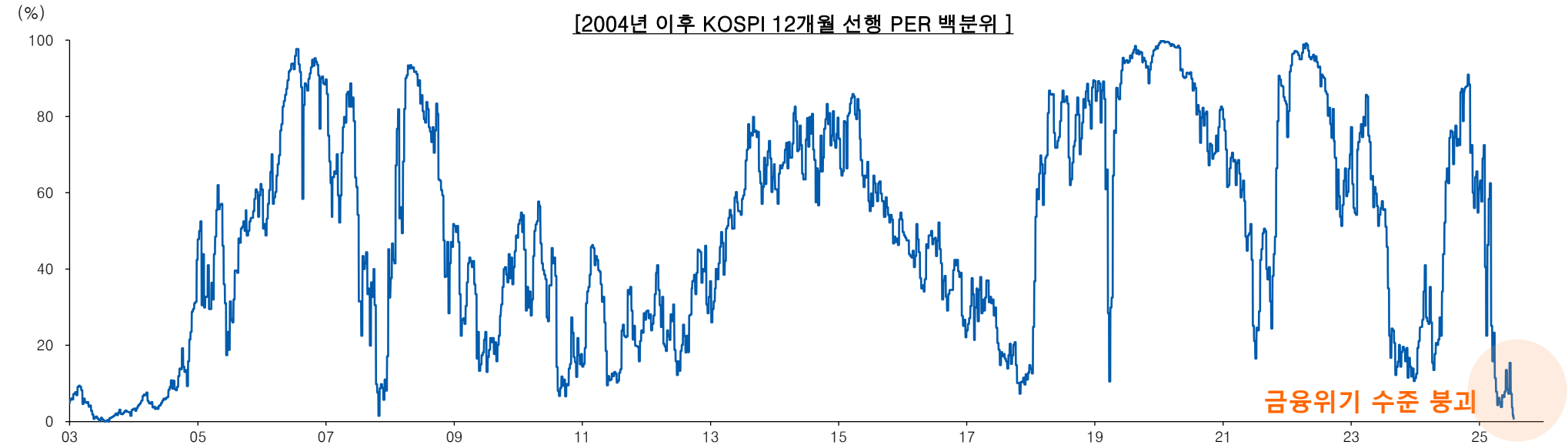
주가 신고가 돌파하며
하이퍼스케일러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 야기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상황은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상 낙폭 과대 : 매도 실익 없는 구간

1) 금융위기 이하 2) 아시아 신흥국 3) 후행 PBR 기준으로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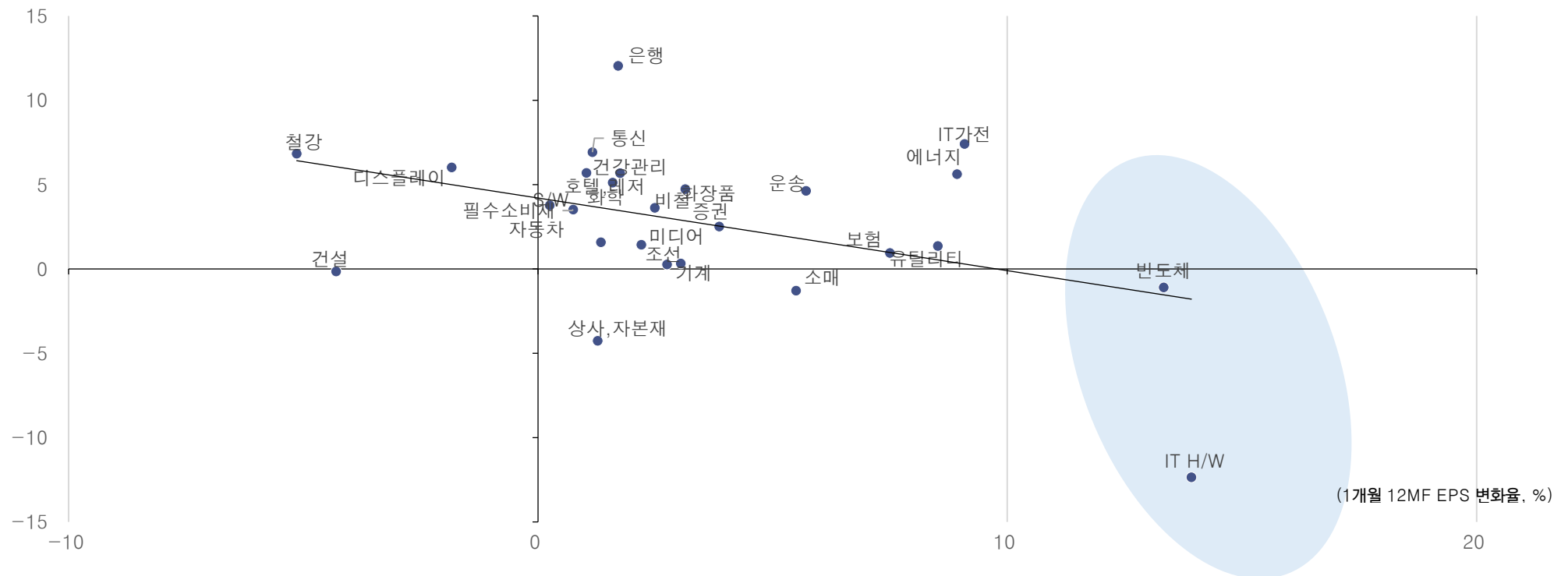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략) 달라진 것은 없다. 수급, 이익 모두 IT-반도체를 가리킨다

- 외국인 환율 변동성 감소+ 낙폭 과대 구간 도달 이후 대형주 매수.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가장 많이 이뤄진 것 역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향 조정 고려할 필요 적음을 자료를 통해 지속 언급
- 레버리지ETF발 변동성과 순매수 주체의 부재는 지수가 금융위기 이하의 밸류에이션으로 급락하게 만든 상황. 변동성은 변수가 아닌 상수. 그러나 반도체 수요와 공급, 이익의 방향성 모두 이번 급락을 정당화할 정도로 변한 것은 없는 상황. 세상의 걱정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업의 이익 전망이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만 무너졌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을 검증해 나가며 투매는 지양할 시점. 전략은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 IT 하드웨어/ KOSDAQ 반도체 소부장

이익 체력 가장 확실한데 낙폭 과대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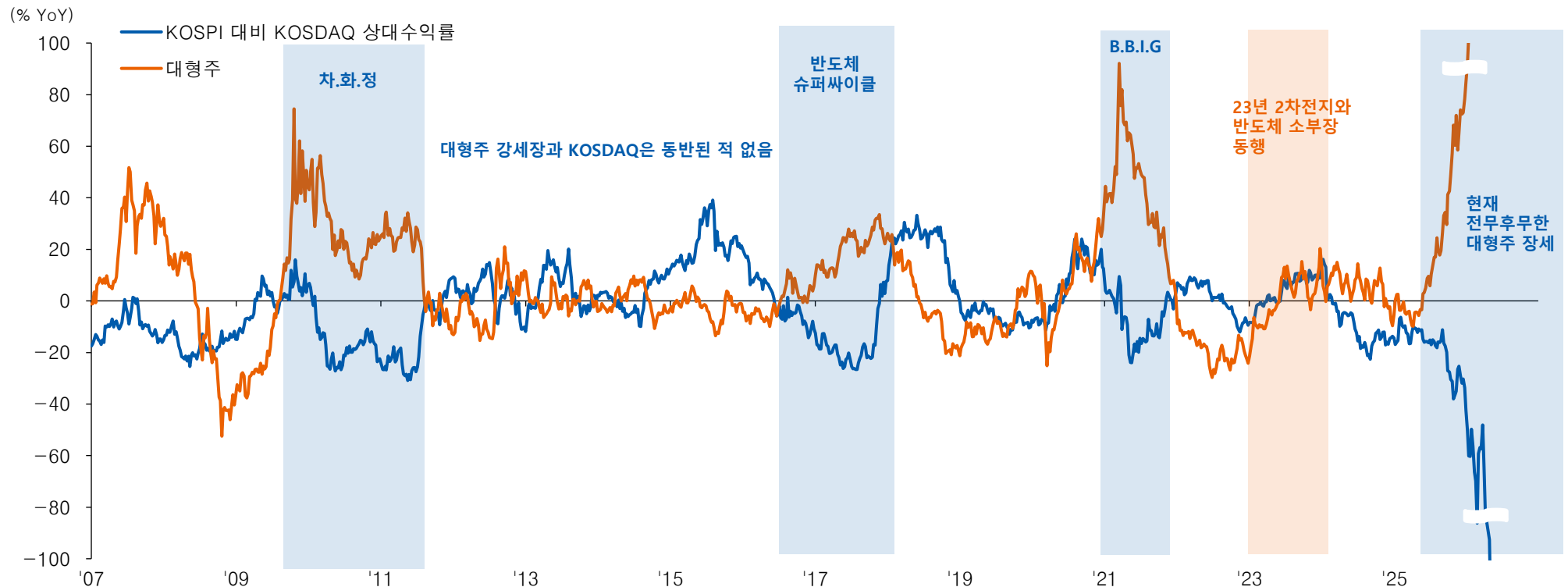
(1주일 상대수익률, %p)



대형주 장세에서 소외됐던 KOSDAQ, 역전의 기회는 존재

- 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강세 국면에서 중소형주 수익률 부진 불가피. 1) 이익모멘텀 대형주 중심으로 이동 2) 수급도 대형주로 이동 3) 패시브 강세 Vs. 액티브 약세장 전개되며 중소형주 관심 감소
- 대형 반도체 랠리 강도 약화되는 구간에서 KOSDAQ 순환매 기대 가능. 해당 시점은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수출증가율 둔화되며 KOSDAQ 프리미엄 지수 출시라는 정책 모멘텀도 동반 예정된 9월 이후 기대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개선 및 이재명 정부 정책 모멘텀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재 낙폭 과대 구간의 KOSDAQ 지수에 반전 기대할 여지 존재

대형주 강세장에서 상대적 약세였던 KOSDAQ



KOSDAQ, 극단적 수급 쏠림이 낳은 최대 피해자

- 25년 하반기 반도체 대형주 랠리 시작 후 KOSDAQ이 KOSPI 대비 약세였던 것은 사실. 그럼에도 우상향 추세는 유지됐으며 경기선인 120일선은 지지. 60일선도 단기 이탈 이후 반등. 6월 들어 이마저 붕괴되며 신저가 경신. 주요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추정. 출시일 이후 대형주 수급 쏠림 심화되며 이평선 이탈
- 핵심은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대형주에 대한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제공. 개인투자자에게 대형 반도체주를 매수하는 것 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고배타 투자수단을 제공. 기존 KOSDAQ 성장주로 향하던 모멘텀 수급까지 대형 반도체 단일종목으로 재배분 시키는 효과. 단순 파생형 상품을 넘어 국내 주식시장 수급 집중도를 높이는 새로운 경로로 작동.
- 결론은 현재의 최악의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개선된다면 수급 쏠림 완화 기대. 현재의 주요 이평선 대비 이격도와 KOSPI와의 수익률 격차는 축소될 여지 충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KOSDAQ 시장 절대/상대 부진 가속화

(지수)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정부

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보완대책 잘 신속히 마련하라"

송고 2026-07-15 12:42

세 줄 요약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日本語 Español عربي

배영경 기자 + 구독 강수련 기자 + 구독 김지연 기자 + 구독

이찬진 "시장관리자로서 책임 있다"

자료: 연합뉴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멈추지 않을 KOSDAQ 부양 정책 모멘텀, 개인투자자 복귀 기대

- 정부의 KOSDAQ 정책은 단기적 지수 부양이 아닌 모험자본 조성 → 체질 개선(시장 신뢰 회복) → 장기자금 유입 → 우량기업 선별로 이어지는 구조개편에 초점
- 기술특례상장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 기관투자자 진입여건을 묶은 종합 대책(25.12)을 시작으로, 26년에도 연기금 평가 벤치마크에 KOSDAQ 5% 반영, 국민성장펀드 내 코스닥 펀드 신설을 공식화하며 실질적인 수급 기반 보강
- 향후 핵심 정책 이벤트는 프리미엄 세그먼트 및 대표지수, ETF의 구체화와 KOSDAQ 펀드의 실제 결성 및 집행으로 정책 효과 반영된다면 기술력과 성장성, 유동성을 갖춘 우량 성장주로 개인투자자 자금 재유입 기대

이재명 정부 KOSDAQ 정책 흐름

정책 단계	모험자본 조성	KOSDAQ 체질 개선	자금유입 경로 구축	우량기업 선별&육성
목적	성장자금 공급	혁신기업 진입 부실기업 퇴출	기관 및 정책자금 유입	우량주 재평가
핵심 정책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및 벤처 스케일업 지원	성장폐지 개혁, 기술특례상장 확대	연기금 BM KOSDAQ150 반영, BDC 시행, 국민성장펀드 내 KOSDAQ 펀드 신설	KOSDAQ 프리미엄지수 출시

향후 진행될 주요 KOSDAQ 정책 이벤트

예상 시점	정책 이벤트	시장 영향
2026년 7월 말~8월 초	생산적 금융 ISA 세부 세제안	개인 장기자금 유입 기대
2026년 3분기~4분기	KOSDAQ 프리미엄·스탠더드 편입 기준 및 지수 세부안	KOSDAQ 우량주 선별 재평가
2026년 10~11월	코너스톤 투자자·사전수요예측 시행 가능	신규 상장주 수급 안정
2026년 11월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우량·부실기업 차별화 확대
2026년 12월 전후	국민성장펀드 민관합동펀드 자금 공급 개시	신규·초기 KOSDAQ 기업 지원
2027년	KOSDAQ 세그먼트·승강제 본격 시행	기관지수·ETF 자금 유입 가능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연합뉴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낙폭 과대주 중 실적 모멘텀 존재하는 종목 스크리닝, KOSDAQ 종목 다수

최근 1개월 고점 대비 낙폭 최상위 종목 중 최근 12개월 선행 EPS 1개월 변화율 상위 10% 종목 스크리닝 결과 KOSDAQ 종목 다수 포함

종목	최근 1개월 고점 대비 낙폭 (%)	12개월 EPS 1개월 변화율 (%)	종목	최근 1개월 고점 대비 낙폭 (%)	12개월 EPS 1개월 변화율 (%)	종목	최근 1개월 고점 대비 낙폭 (%)	12개월 EPS 1개월 변화율 (%)
에이치브이엠	-60.5	6.9	네오티스	-45.0	6.4	가온그룹	-40.1	4.2
삼아알미늄	-57.2	13.8	인텔리안테크	-45.0	4.2	레인보우로보틱스	-39.8	5.8
케이엠더블유	-57.0	16.1	링크솔루션	-44.7	26.4	한화비전	-39.6	3.5
두산로보틱스	-55.3	11.4	두산테스나	-44.7	6.4	넥스틴	-39.6	14.4
알맥	-55.0	9.9	전진건설로봇	-44.2	0.9	리센스메디컬	-39.5	43.9
엔비알모션	-52.6	36.0	HPSP	-44.1	4.0	루미르	-39.0	10.4
미래에셋생명	-50.8	0.3	아바텍	-44.0	0.1	에코프로비엠	-38.8	4.3
코스텍시스	-50.5	5.8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43.9	326.2	한화오션	-38.4	4.9
현대오토에버	-49.2	1.2	RFHIC	-43.7	2.9	엠로	-38.3	11.4
컨텍	-48.5	36.9	LG헬로비전	-43.6	2.2	한화시스템	-38.2	1.8
에치에프알	-48.5	11.3	코미코	-43.2	2.4	SK오션플랜트	-37.8	2.4
스피어	-46.8	148.3	후성	-43.1	5.6	삼양컴텍	-37.8	1.6
세미파이브	-46.7	21.0	엠케이전자	-41.9	5.2	한온시스템	-37.8	4.1
LG이노텍	-46.4	8.4	자람테크놀로지	-40.9	50.0	삼성전기	-37.8	16.8
아비코전자	-46.1	2.4	화신	-40.9	0.8	LS에코에너지	-37.2	1.7
코리아써킷	-45.5	8.2	LG전자	-40.9	10.7	한전기술	-37.2	2.2
심플랫폼	-45.3	11.1	대우건설	-40.8	13.0	이오테크닉스	-37.1	7.8
오이솔루션	-45.2	2.5	성일하이텍	-40.5	233.0	아모그린텍	-37.0	4.5
티엠씨	-45.1	2.4	아모텍	-40.3	4.7	대원제약	-36.8	18.5
네패스	-45.1	10.9	HL만도	-40.2	3.6	에스피지	-36.7	4.0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 知